

‘캡틴 조로’ 손흥민 합류 … 더 단단한 ‘원팀’ 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사흘 앞둔 17일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대표팀 손흥민(왼쪽)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얼굴 절반 가리는 검은색 안면보호 마스크 끼고 훈련 선수들 “진짜 다 뭉친 느낌 … 월드컵에 대한 열정과 의지 배워”

원쪽 눈 부위에 아찔한 골절상을 입고도 월드컵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존재감에 동료들은 ‘진정한 원팀’이 됐다며 반기고 있다.

손흥민은 16일(현지시간) 이른 새벽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에 도착, 그날 오전에 진행된 대표팀 훈련부터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이달 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 도중 안와 골절상을 입어 4일 수술대

에 오른 지 열흘 남짓 지난 시점이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안면 보호를 위한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그는 카타르 입성 뒤 첫 훈련에서 실제 마스크를 낀 모습을 공개했다.

이마부터 얼굴을 절반 정도 가리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손흥민은 조깅이나 패스 훈련 등을 소화, 24일 우루과이와 1차전으로 월드컵 조별리그

를 시작하는 대표팀에 안심과 희망을 안기고 있다.

특히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은 벤투호의 20대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합류가 팀 분위기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측면 공격수 송민규(전북)는 “흥민이 형이 들어오면서 팀이 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졌다. 한 명으로 인해서 더욱 한 팀이 됐다”고 전했다.

미드필더 이강인(마요르카) 역시 “형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니까, 이제 진짜 다 뭉친 느낌이 처음으로 든다. 오늘 일어났을 때부터 들렸다”고 밝혔다.

백승호(전북) 역시 “완전체가 된 만큼 팀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잘 맞춰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개인적으로 형에게도 말했다. 마스크를 낀 모습이 멋있다. 더 강해 보이기도 한다”며 “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형이 와서 기분이 좋고, 웃는 모습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폴백 윤종규(서울)는 “대한민국이니까 마스크도 태극기 색깔로 흰색, 빨간색, 검은색이 섞여 있기를 바랐는데, 검은색이어서 살짝 아쉽다”면서도 “형이 마스크를 끼고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며 미소 지었다.

‘월드 클래스 스타’인 주장의 후원은 그와 같은 선수가 되길 꿈꾸는 후배들에게 귀감도 된다.

송민규는 “흥민이 형이 ‘1% 가능성만 있어도 나

가겠다’고 한 말로 보여준 월드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많이 배우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하나같은 소망은 손흥민의 빠른 회복이다.

이강인은 “흥민이 형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한 명의 축구 팬이자 형의 팬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송민규는 “얼른 회복해서 같이 경기장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의 구심점인 손흥민의 복귀로 더욱 뭉친 대표팀은 17일엔 카타르 입성 이후 처음으로 하루 두 차례 훈련을 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승 후보 아르헨, 평가전에서 UAE 5-0 대파

메시 1골 1도움 승리에 앞장 독일은 오만에 1-0 ‘진땀 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정조준하는 아르헨티나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평가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아르헨티나는 16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의 무함마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원정 평가전에서 UAE를 5-0으로 대파했다.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이 큰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1골 1도움, 앙헬 디 마리아(유벤투스)가 2골로 승리에 앞장섰다.

4년 뒤면 39세가 되는 메시는 마흔에 가까운 나이로 남미의 강호인 자국 대표팀의 험난한 경쟁을 뚫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공식전 18경기에 출전해 11골 14도움을 올린 메시는 이날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였다.

경기 시작 17분 만에 메시의 패스를 받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25분과 전반 36분 디 마리아가 연속골을 폭발했다.

메시는 전반 44분에는 직접 득점포도 가동했다. 페널티아크부터 공을 몰고 수비를 제친 메시는 장기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대 반대편 구석 상단을 정확히 찼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15분 호아킨 코레아가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슈팅으로 또 한 골을 추가하며 5-0 대승을 완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와 함께 C조에 편성된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한다.

한편 ‘전차군단’ 독일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75위 오만과 원정 평가전에서 1-0으로 진땀승을 거뒀다.

독일은 경기 내내 공격권을 확보하며 공세를 폈지만, 승리를 완성해줄 골이 터지지 않았다.

후반 27분에는 날카로운 역습에 이어 문전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UAE의 무함마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의 평가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만의 공격수가 수비 견제 없이 공을 받는 위태로운 장면도 나왔지만, 마무리에 실패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8분 후 문전에 있던 니콜라스 필크루트가 카이

하베르츠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겨우 승리를 쟁겼다.

독일은 일본,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E조에서 16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벤투호 몸값 잉글랜드 대표팀 10분의 1 수준

‘이적료 총합’ 약 2200억원 H조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벤투호의 전체 몸값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별리그 H조 경쟁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평가액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할 32개국 선수단의 전체 이적료 가치(transfer value)를 발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적료 총합’은 1억5900만유로(약 2200억원)으로 파악됐다. 본선 진출국 32개국 가운데 26위다.

벤투호에서 가장 이적료가 비싼 선수는 손흥민(토트넘)으로, 4600만유로(약 636억원)가 책정됐다. 손흥민의 이적료 가치가 벤투호 전체 ‘몸값’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이적료가 전체 1위인 14억99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로 추산됐다. 벤투호의 10배 수준이다.

가장 비싼 이적료를 자랑하는 선수는 약 2억 200만유로(약 2700억원)로 추산된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도르트문트)이었다.

브라질과 프랑스의 슈퍼스타 네이마르(2억100만유로), 킬리안 음바페(1억8500만유로·이상 파리 생제르맹)가 그 뒤를 이었다.

벤투호의 조별리그 상대 포르투갈 대표팀의 이적료는 11억5400만유로(약 1조6000억원)로 파악됐다.

잉글랜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5위로, 벤투호의 7배가량이다. 최고 이적료를 자랑하는 선수는 후버 디아스(맨체스터 시티·1억1800만유로)였다.

또 다른 조별리그 상대 우루과이는 9위(5억 9000만유로), 가나는 19위(2억700만유로)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루과이는 벤투호의 약 3.7배, 가나는 약 1.3배다. 각각 최고 선수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1억2300만유로), 토머스 파티(아스날·2500만유로)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전체 20위(2억500만유로)를 기록했다. 정우영의 팀 동료인 도안 리스(프라이부르크)가 2900만유로(약 400억원)로 최고 가치의 선수로 평가됐다.

가장 대표팀의 도합 이적료가 낮은 출전국은 2300만유로(약 318억원)의 코스타리카였다. 개최국 카타르가 2900만유로(약 400억원)로 코스타리카 바로 위에 자리했다.

32개 출전국 선수단의 이적료 총합은 150억유로(약 2조 7400억원)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형은 가나·동생은 스페인 … 윌리엄스 형제 월드컵 동반 출전

가나축구협회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합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던 이냐키 윌리엄스(28)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아프리카 가족 여행’이었다.

윌리엄스는 17일 “올해 초 서 아프리카 여행 기간 중 가나에 갔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 벽돌을 옮기는 모습을 봤다. 나는 동생에게 ‘우리 부모님이 유럽으로 망명하지 않고 이곳에 살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나는 가나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고 느꼈고, 대표팀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윌리엄스의 가나행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윌리엄스의 동생 니코 윌리엄스(20·아틀레틱 빌바오)는 스페인 대표팀에 뽑혀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한다.

‘윌리엄스 형제’는 2010년과 2014년 월드컵에 출전한 케빈-프린스 보야빙(가나)·제롬 보야빙(독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다른 국가 소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형제로 기록된다.

/연합뉴스